



디자인 복합 문화 공간 S-gallery+

# 더 많아져야 할, 바로 이러한 디자인 공간

공간에 '멀티'의 개념이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제품 전시장마저 갤러리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상은 디자인이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디스플레이 디자인 기업 sda가 선보인 두 번째 전시장 S-gallery+에 가보면 더 확실해지는 생각.

에디터 이승민 자료 제공 (주)에스디에어소시에이션(02-3442-6368)



모처럼 한기한 주말, 차를 달려 미사리로 향했다. 늘상 보던 레스토랑과 카페들 말고 새로운 '갤러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참이었다. 모던한 외관의 4층으로 이루어진 'S-gallery+'. 디스플레이 디자인 기업으로 잘 알려진 sda가 마련한 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쇼룸의 개념에서 완벽하게 탈피했다는 점이 우선 인상적이었다.

4개 층에 걸쳐 가구와 패브릭, 조명, 소품 등 리빙 제품과 오브제를 전시해 놓은 이곳은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편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에는 패브릭, 조명, 인테리어 소품 등이 전시돼 있고, 1층에는 모던 가구, 2층엔 오리엔탈과 고가구, 그리고 4층에서는 디자인 상담과 컨설팅, 디자인 파티 및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이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3층의 디자인 갤러리 때문이다. 건축 및 공간 디자이너와 화가, 도예가, 조각가 등 순수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자 디자인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함으로써 기업 쇼룸을 멀티플렉스 문화 공간이자 디자인 갤러리로 업그레이드시켰다. 디자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 활동이 전개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디자이너들의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기업의 공간 투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디자인을 위한 학술 세미나나 심포지엄, 포럼, 출판 기념 전시, 디자이너 파티 등과 연계해 건축 디자인 전문가, 건설 업체 관계자, 학계, 협회인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스플레이 디자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S-gallery+ 오픈은 20여 년 동안 국내 공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해온 sda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프로젝트다. S-gallery+ 오픈과 함께 디자인 전문가와 아트 작가들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이벤트로 도예가 최홍선과 광경화가 참여하는 테마 기획전이 열리기도 했다. S-gallery+의 오픈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신비로운 탄생을 연상시키듯 조용한 공간 속에 길게 호흡하는 생명력의 다양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최홍선은 흙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오브제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광경화는 물이나 눈물 같은 일상의 소재들이 갖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S-gallery+는 미사리 디자인 갤러리를 통해 예술가들의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감각을 리빙 공간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달 다양한 리빙 주제를 통해 리빙 오브제와 예술 혹은 디자인이 어떻게 리빙 공간에 접목되고 실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개인 작품전은 물론 디자인전, 출판 기념회를 통해 그동안 디자인 전시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생각이다. sda의 협력 작가로 참여하는 순수 작가들은 리빙 공간에 예술가들의 손길이 어떤 식으로 접목되고 전개되는지 공간의 예술화를 현장에서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31-792-7825 ☎